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양환 장로 2부/김수명 장로 3부/김수열 장로 4부/이예지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4:18-19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3:16-14:52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25) 헌금에서 향이 납니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피곤한 승리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여긴 다 개죠? All Dogs Here, Right?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개고기와 오리고기, 두 가지만 파는 식당에 목사님들 10여 명이 몰려 갔다고 합니다. 일행 중 단골이 한 분 계셔서 방을 예약하고 주문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웨이트리스가 문을 열고 하는 말이 “여긴 다 개죠?” 였다고 합니다. 모두들 한바탕 웃으면서, 줄지에 개가 되어 버린 목사님들은 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 마디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잘 짖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열심히 증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 지켜야 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양 떼를 넘보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잘 보호하고 바른말과 진리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잘 먹고 잘 뛰어야 한다. 심방할 때 커피가 10잔 계속 나오더라도 잘 마시며 심방을 열심히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넷째, 주인을 절대 물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의리가 있다. 맞습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 성도를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본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목사뿐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개를 충견이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 보스턴에 집회가 있어서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 숙소에서 집회하는 교회를 향하여 가는 길에 미국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문 앞에 개를 끌고 나온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라이드 주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 “왜 개들이 교회 앞에 모여 있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지금 개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성직자 로브를 입은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들이 문헌 공동묘지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을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저 개들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보는 그 개들을 보면서 겸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개, 충성스러운 개... “여긴 다 개죠?” 하는 말을 오히려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About 10 pastors went to a restaurant that served only two kinds of meat: dog meat and duck meat. A pastor, who was a regular customer there, reserved a room. As they were waiting to place an order, a waitress opened the door and said, “All dogs here, right?” With this, these pastors abruptly became dogs. They all laughed heartily and began to list the reasons why they should be dogs. First, they must bark well. As ones who proclaim God’s Word, they need to witness with zeal. Second, they must protect well. Protect the believers from the evil power that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heep to devour; and lead them to the truth with right words. Third, they must eat and run well. As they do home visitations where coffee is continually served, they need to drink 10 cups well and diligently press on with their visitations. Pastors eat as they are served. Fourth, they must never bite their master. Pastors must be faithful to the end without betraying God their master. Fifth, they must have loyalty. That’s right. A pastor must not look at the believers of another church with covetous eyes. That’s to keep his loyalty to the believers of his own church entrusted by God. Perhaps not only pastors, but also all believers in Christ should be like this. As such dogs are called faithful dogs, we all who follow Jesus should be faithful believers.

Some years ago I went to Boston for a revival meeting. Early Sunday morning, on the way from my lodging to the church where the revival meeting took place, I passed by an American church. In front of that church’s main entrance, I saw a crowd of people with their dogs. The pastor who was driving asked me, “Do you know why these dogs are gathered in front of the church?” “Well?” “These folks are having Sunday worship with their dogs.” “What?” I was startled and looked closely. Then I saw a pastor in a clergy robe leading a worship in the front. I have seen a pet cemetery where dogs are buried, but have never imagined that there would be a church that worships like this. Truly, if there are people who do not worship on Sunday, we could say that they are worse than the dogs. In all ages and countries, the animal that comes up the most often when people curse is dogs. But we may need to be humble before such dogs. Dogs that worship on Sunday, the faithful dogs. . . A great sadness surges that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the phrase “All dogs here, right?” has become a lesson to be engraved in our hearts.


빌립보서 강해 -제25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헌금에서 향이 납니다

(빌 4:18-19)

1. 어떤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적용하기



2.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 제물이요..." 빈칸을 채우시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구약적인 배경을 참고 구절을 읽고 설명해 보십시오.(참고/출 29:18, 레 2:9)

3.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구절을 읽고 내가 드리는 제물에서도 향기가 나는지 나눠 봅시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도 있느니라"(마 6:21)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니" (고후 2:14)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sacrifice)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새겨봅시다.(참고/ 마 3:17)

5.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취하실 행동은 무엇입니까?(19절, 참고/마 6:33, 눅 6:38)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 6:33)

■ 적용찬양: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목회자 인터뷰

이진영 전도사



1. 베델 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눠주세요.

남편이 작년 1월 4일에 하늘나라로 간 후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저는 사역을 더는 못 할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상실의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베델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험시바 새벽 예배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놀랍게 경험했으며, 매주 영아부 예배를 인

도하면서 아기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치유가 되며 감동이 임함을 경험합니다.

2. 전도사님의 신앙적 배경과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 1학년에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 저의 온 식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지금은 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7년의 방황을 끝으로 놀랍게 회복되어, 날마다 큐티를 하며 저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직장 일이 바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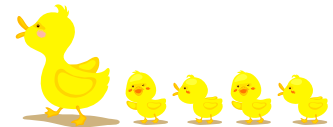
3.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29절은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힘씁니다. 저는 미련하고 약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4.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각오 나눠주세요.

영아부 아기들에게 나이를 넘어서서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1살 반에서 3살의 아기들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아부에 나오는 모든 아기가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영아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델선교 - BAM

말씀을 마음에 둔 자 되어



팬데믹 기간이 가져다준 신앙의 메마름과 멈춰져 버린 듯한 신앙생활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셀 목자님을 통해 BAM 훈련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BAM 훈련에 참석한 목적은 단순히 메말라 가는 신앙에 오아시스를 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재와 영상을 통한 공부 및 훈련을 하고 매주 한 차례 스쿼드(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저 교회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의 안정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훈련을 해나가며 깊은 깨달음과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현대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난 4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BAM 훈련을 통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와 비즈니스 세계의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가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 5일 동안 나아가 있는 우리의 일터가 바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선교지가 되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깨닫는 소중한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비즈니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소중한 훈련이었으나 거룩한 부담감 또한, 가지게 됩니다. 머리로만 깨달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소명을 완수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이제는 온갖 유혹과 시험과 치열함이 있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청지기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바로 선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김대용 집사





사랑 주머니 가득

올해 베델교회에 등록한 저희 가정은 4월부터 은혜 목장에 속한 하늘 가족 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온라인(Zoom)을 통해 교제하였고 아직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저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에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모임을 통해 각 사람의 처한 환경과 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셀식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의 정도를 같이 걷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중보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셀은 함께 찬양하고 주일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나눕니다. 함께 나는 말씀은 저의 마음 밭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건실히 살아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의 출

산에도 셀식구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게 타국살이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라 타국에서의 출산이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셀식구들은 물심양면으로 저와 가족을 돌봐주었고 어찌 보답해야 할지 고민할 때, 오해진 집사님께서 본인도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며 제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마음은 명료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의 비밀을 풀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의 하늘, 올해에 태어난 둘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다'는 뜻의 하루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늘 가족 셀에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저희 가정을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하늘 가족 셀과 베델 가족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영심 성도



특별기획 - 돌파 코로나 '베델이 간다!'(2)

강풍 타고, 더 높이

2020년 4월 1일,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터널 안에 갇힌 듯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한 "예배 전면 중단" 사태를 맞아 베델교회는 이제껏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여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 성도들은 이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교회소식을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베델교회에 처음 접속하게 된 분들에게 공간의 제약 없이 베델의 사역을 한눈에 펼쳐 보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로 의기소침해 있던 성도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진" 말씀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히브리서 인사 '달세!'를 외치고, 언제 끝날지 모를 팬데믹에도 용기를 잃지 말자는 다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시기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게 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매주 금요일 성도들의 업소를 소개하

기 시작했고, 성도들로부터 생필품을 도네이션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드리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인 '두드림 Do Dream', 수요 프로젝트 '요이팡', 암 환자를 음식으로 섬기는 '예향 사역'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비록 1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이긴 했으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에 교회 모든 스태프진의 기쁨과 감사는 흥분으로 바뀌었고,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된 날, 드디어 모든 스태프진과 봉사자들은 예배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교회 앞뜰에서부터 환한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장 예배에 한 걸음으로 달려 나오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QR system

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QR 코드를 받아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마련되고, 본당과 교육부 예배실 등 교회 곳곳의 방역을 위해 토요일과 주일, 예배 시간 전후로 방역을 하였으며, 예배가 전면 오픈된 지금까지도 이 방역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오픈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예배는 중단되었으나 야외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에 온 교회는 다시 한번 '달세'를 외치며, 야외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돌파 코로나 베델이 간다'에서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평생교육원 - QT 사역

QTin 나눔



QTin 4주 과정의 강좌는 1, 2주는 김한요 목사님의 QT의 의미, 목적, 효과와 유익, 3주는 박경철 목사님의 QTin 사용법과 적용, 그리고 4주에는 이충경 목사님의 QTin 나눔으로 이어져 그룹별로 모여 찬양, 기도, QT 나눔,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마쳤습니다. QTin 강좌에 참여하셨던 분 중 처음으로 QT를 불규칙하게 하셨던 분과 꾸준히 해오셨던 두 분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전에는 제 삶이 부끄러워 성도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QT를 작성하고 저 자신을 성도라 부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의 듣는 기간 동안 와 닿는 강의는 3회차 강의였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룩한 행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지만 거룩하지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 책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 경철 목사님의 QT 강의를 통해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내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보니 요즘 매일 QT하고 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는 제 삶이 온전하지는 않으나 날마다 QT와 더불어 말씀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로 인도된 제 삶은 머리로 믿는 신앙생활이기에 무언가 말씀을 배우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QT 책을 1년씩 구독도 해보고,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길게 가지 않았고, 어려운 성경이 도통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QT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달라진 저의 태도를 보면서도 믿음의 성장하는 때가 있음을 새삼

깨달았고, 사람이 필요로만 사는 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육을 위한 삼시 세끼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영의 생명체이기에 영이 배고프지 않게 QT로 매일매일 영을 살리는 양식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QT를 삶에 적용하면서, 변화된 완료 형의 삶이라기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삶 속에 있긴 하지만 QT를 하는 요즘은 상황 하나하나를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었던 저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QT는 부흥 집회 이후 바로 한국에서 QTin 책자를 공수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QT를 혼자 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 QT를 먼저 시작했고 그 후에 QTin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QT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QT를 하는 방법이 있음을 강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니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QT

하는 방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서 그들이 QT를 할 수 있게 권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남편이 QT 강의를 듣기 전의 제 말 보다 강의 들은 후의 제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강좌가 제게 QT 전도사 자격증을 준 느낌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된 QT에서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기였습니다. QT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질문을 찾아낼 수 없는 날에는 왜 질문이 없을까를 묵상하며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문과 답을 생각하며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곤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은영 집사



QTin강좌를 들으면서, 셀목자로서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셀 모임 속에서 공감과 말씀 적용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영적인 감각이 더 넓혀져 폭넓은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QT로 저 자신을 매일 돌아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T를 통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말씀의 인도로 나를 무장하여 셀모임

이나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이 오로지 말씀 안에서 나오고 행해지도록 노력하러 합니다.

목사님들의 강의 중 제일은 '나눔은 누룩과 같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나눔의 기술인 3C-Challenge(도전), Context(상황), Change(변화)를 통하여 내 안에 정리된 말씀을 셀식구들과 제 자신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 교제가 저와 저희 셀 식구들에게 더 높게, 더 깊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윤성자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훈란

사역광고

새가족 환영회

할렐루야!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월 16일(목) 저녁 7시에 유년부(2-3학년) 예배실에서 새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4주에 걸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성도님들을 베델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환영회에 초청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교회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새가족팀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동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담당 한순교 전도사님과 담임목사님, 그리고 저희 새가족 사역팀과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이민 생활의 부족함을 채우는 영적인 형통하심과 신앙의 정수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환영회에서 목회자 소개와 사역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최고의 음식을 멋지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환영회를 마친 후에는 베델의 진정한 한 가족으로 일대일 양육, 제자훈련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하셔서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일시: 12월 16일(목) 오후 7시
- ▶ 장소: 유년부실(비전채플 아래층)
- ▶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	12/19:	①부-김인권	②부-김재훈	③부-김정욱	④부-김준희
	12/26:	①부-김정윤	②부-김정태	③부-김종학	④부-나승채
	1/2:	①부-이선갑	②부-변준호	③부-홍대원	④부-신희원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	12/18: 김병희	12/25: 성탄예배	1/1: 송구영신예배	1/8: 엘새
강단꽃(12월)	12/12: 박원식	12/19: 박중현	12/26: 김학남	1/2: 기승호, 김종현, 김한요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목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예배 후 즉시 출차 / 주차증 발급 안내**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셔틀 운행)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올 말까지 2020년 주차증을 그 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새롭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차사무실로 오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러브 찬양집회** 오늘 저녁 7시 한국에서 위러브 찬양팀을 초청하여 찬양집회를 갖습니다. 오픈 예배 형식으로 백신 카드만 지참하면(큐알 코드 가능) 누구나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탄감사주일 및 성탄감사예배** 다음주 19일 주일예배는 성탄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또한 12월 25일(토)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예배(Christmas Family Worship)를 오전 10시 30분에 베델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소중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감사예배: 12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 **수요특별기획 "예.수.아"** 수요프로젝트 "예.수.아"가 돌아오는 수요일(15일)에 WELOVE와 함께 이야기와 찬양을 담아 방영이 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새가족 환영회**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엽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12월 16일(목) 오후 7시, 유년부실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이길수 집사 (714)328-3350

◆ **2022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Go Deeper, Go Higher! 2022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엘리야특별새벽기도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월 3일-1월 8일(월-금 오전 5시, 토 오전 5시 30분)
강사: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박석훈 목사(멕시코 우리교회), 홍기영 목사(분당 창조교회)

◆ **임직예배**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2022년 신임임직자들의 임직예배가 12월 19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9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 **2022년 신임임직자 사관학교** 2022년에 새로 임직하시는 사역장로(부부), 안수집사, 사역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임 임직자는 2주에 걸쳐 베델교회 사역을 참관하게 되오니 준비 부탁 드립니다.
일시/장소: 12월 17일(금)-18일(토), 갈릴리 수양관
출발 일시: 12월 17일(금) 오후 7시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대상: 2022 신임 임직 장로(부부), 안수집사, 권사 전원 버스로 이동합니다.
*베델교회 사역 참관: 12월 19일(주일), 12월 26일(주일) 오전 11시에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행(17일) 때 공지 됩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사관학교에 의무적으로 참석 하셔야 합니다.

◆ **CIM 한어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Align이란 주제로 CIM 겨울 수련회가 12월 28일(화) -30일(목)에 열립니다. CIM 친구들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일시/장소: 12월 28일(화)-30일(목), Hope Heaven (23062 FORLORI Cir, Perris, CA 92570)
강사/등록마감/회비: 주성필 목사, 12월 26일(주일), \$150
문의: 김도석 팀장 (714)401-0532

◆ **교회학교 성탄절 특별 예배**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신 성탄절의 참 뜻을 이해하고 함께 축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문의: 12월 19일(주일) 2,3부,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Donation** 교회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donation을 받습니다. Donation 해주신 모든 장식품은 각 부서 트리를 꾸미는데 사용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 **교회학교 교사만찬** 2021년 교사만찬이 각 부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 분들께 감사 드리며 교회 학교를 지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각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Bethel Grace Donation 담요 기증** 베델교회 영어권인 Bethel Grace에서 교단 CMA안에 있는 Watts Powerhouse Church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담요를 도네이션 받아서 12월 13일(월)에 전달을 합니다.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대 대통령 재외선교 유권자 등록을 위한 신고/신청** 오늘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교회를 방문해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신청을 위해 여권번호가 필요하며 모르셔도 등록만 하시면 주중에 연락을 드려서 받습니다.

◆ **Lost & Found 운영 안내** 교회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후 본당 앞 Lost & Found 부스로 오셔서 분실물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사진 확인 방법: 교회 홈페이지에서 Lost & Found 아이콘 클릭
문의: 이제석 집사 (949)943-0850

◆ **한국학교 가을학기 종강식** 이번주 토요일(18일)에 한국학교 가을학기 종강식이 있습니다. 이 날은 감사예배와 함께 그 동안 학생들이 준비한 학예발표회가 있으니 학부형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본당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위로해 주세요**故 박현순 권사님(강온자 권사의 모친, 강귀남 집사의 장모)께서 12월 9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정지혜 자매,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기쁨으로



리셋

A Fragrant Offering

(Philippians 4:18–19)

1. What kind of perfume do you use?
2. "I am amply supplied, now that I have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gifts you sent. They are a () offering, an acceptable sacrifice..." Fill in the blank and explain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for using these expressions. (Ref/ Exodus 29:18, Lev 2:9)
3. Read the verses below to see what the fragrant offering means and share whether your offering is fragrant.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 will be also." (Matthew 6:21)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as captives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and uses us to spread the () of the knowledge of him everywhere. For we are to God the pleasing ()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2 Corinthians 2:14-15)
4. What is the meaning of a sacrifice that pleases God? Think about the reason why Jesus became a joy to Heavenly Father and meditate on it. (Ref/ Matthew 3:17)
5. What would God do when you please Him? (V 19, Ref/ Matthew 6:33, Luke 6:38) Believe in these words, and pray you would become a believer who pleases God.

"But seek ()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 to you as well." (Matthew 6:33)

Apply to Life

